



외면하는 李-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위 전국청년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차명 의혹 제기 서청원씨 소환 조사

### 검찰 “주민등록 부정발급 홍윤식씨 혐의 부인...보강조사 방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7일 서청원 한나라당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전·현직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서 의원이 한나라당 김만제 교문이 ‘이 전 시장으로부터 (도곡동 대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의 홍윤식(55)씨를 이날 저녁 일단 석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인 홍씨는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된 이 후보 측의 주민등록초본을 권 씨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를 받아 왔으며 16일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홍씨가 워낙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전직 경찰인 권모씨와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단 오늘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해 석방한 뒤 보강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고(故) 최태민 목사의 유류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58)씨를 사전선거 및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조희환 1건을 제의하고 지난 2001년 이후 행정자치부 지적 전산망에 접속한 51건이 모두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였다 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후보 검증공방 다시 가열

# 李측 “도덕성 간판 내려야” 공세 朴측 “죽을 죄라도 지었냐” 반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은 17일 캠프 외곽인사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 연루 의혹으로 형성된 수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이에 이 전 시장 측은 더욱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박 전 대표 측을 압박했다.

◇박 전 대표 측의 반격=캠프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캠프 내 불법 행위 전무’를 선언하면서 반격으로 방향을 틀었다.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철저히 조사한 결과, 캠프 내 불법에 연루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캠프는 깨끗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전 시장 측을 향해서는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 사건을 검증 수세국면 탈출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며 보다 총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캠프의 최경환 종합상황실장은 “의혹의 본질은 어디 가 버리고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캠프 외곽인사의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 건과 관련, “우리가 무슨 죽을 죄, 큰 죄라도 지었느냐”고 말했다.

그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공천심사 할 때도 다 내는 것으로, 마치 국기 문란 행위나 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그것도 공개하지 못할 분이라면 대선 출마는 고사하고 아예 사인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홍사덕 위원장은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씩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이 아니라 왜 초본을 문제삼느냐 하는 여론이 나오는 것 같다”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이 전 시장 측 공세 계속=박 전 대표 측 홍 위원장이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발끈하며 공격의 고삐를 다시 당겼다.

캠프는 특히 경우론하 정부 재검토 보고서 유출에 관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방석현 교수와 주민초본 부정발급 사건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홍윤식씨를 ‘박 캠프의 몸통’, ‘마후 실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방 교수와 박 전 대표의 뜻을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홍씨에 대해 ‘우리 캠프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태도”라며 “도덕성을 최고 브랜드로 내세우던 박 캠프가 몸통을 찌러도 둔갑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다면 결국은 ‘도덕성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광근 공동대변인도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홍사덕 선대위원장의 발언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면서 “마후 핵심 실세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건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캠프는 또 박 전 대표 경선 사무실이 홍씨의 처남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도 문제삼고 나섰다. 홍씨와 박 캠프의 ‘특수관계’를 반증해 주는 중요한 소재라는 판단에서다.

박 대변인은 “박 캠프가 입주해 있는 엔빅스 빌딩이 홍씨의 처남 빌딩이고 최초 계약자도 홍씨였다던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캠프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靑 “국정원 부패척결 TF 최근 알아”

청와대는 17일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의 존재 여부를 인정한 시점과 관련, “청와대는 국정원에 부패척결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사전 인지설을 일축했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제도적, 구조적 발생원인이 있는 부패 사안에 대해 정책정보 차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미 국민과 언론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바다이야기, 행담도, 제이유 사건 같은 것들이 그런 사례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할 때 어느 조직에서 생

산한 것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당연하고 청와대도 그런 것을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또 국정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정수석실도 TF 존재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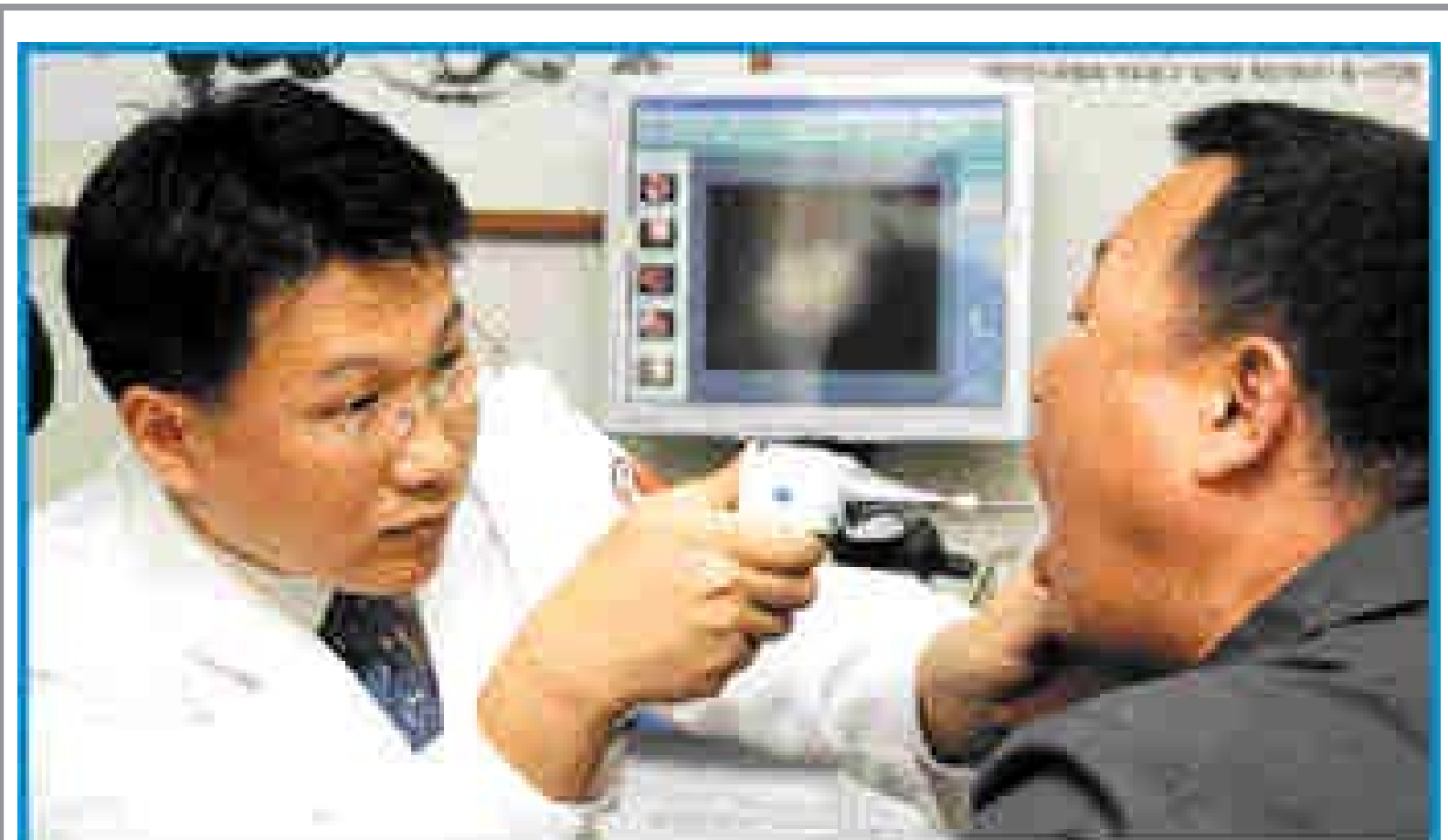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자료열람 및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국가안전 보장기구’가 아

니라 ‘정권안정 보장기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따라서 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뒤에 숨지 말고 말고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 국민은 노 대통령의 정치사찰에 대한 책임을 퇴임 후에도 심판할 것”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민복 국정원장이 부패척결TF(태스크포스) 활동결과를 사안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전 시장 관련 조사내용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이 전 시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병민한의원 김수봉구장

## 병의 원인을 찾아 병을 치료한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병이 재발할 수 없습니다. 병민한의원에서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병민한의원에서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병민한의원에서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병민한의원에서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병민한의원에서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합니다.

## 현장과 시각

### 남는 보리, 어찌란 말인가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지난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 50여 명은 전남도청 앞에서 보리 100여 가마를 야적하고 ‘보리가격 보장과 수매제 유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정부가 올해 보리 수매가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4% 인하한데다, 앞으로 5년간 수매량과 수매가를 단계적으로 낮춰 2012년부터는 아예 보리수매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

농민회는 “보리수매 중단은 농민과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남도와 정부의 책임 있는 보리수매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지역은 올해 2만8천여ha에서 1만1천8천여ha의 보리가 생산됐다. 올해는 따뜻한 겨울날씨 덕분에 풍작이어서 지난해보다 10%가량 수확이 늘었다. 올해 농민의 보리수매(약정)량은 9만9천여 t, 마땅한 대안이 없는 농민들로서 약 2만 t의 보리가 갈 곳 없게 된 것이다.

/song@kwangju.co.kr

국내 1인당 연간 보리소비량 역시 지난 1963년 64.5kg에 달하던 것이 1980년 13.9kg으로 준데다 2000년 1.6kg, 지난해는 1.2kg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소비가 줄며 현재 주요 식량작물이자 구급 작물로 배고픔을 달래주던 보리가 이제는 판로걱정을 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게다가 농협을 통해 수매된 보리는 소비감소로 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농협에 따르면 현재 주정용 보리재고는 16만여 t. 이렇게 재고가 쌓이며 보리품질이 떨어지고 참고보관료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2002~2004년산 묵은 보리 11만t(전남 9만t)을 내년에 1천9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보리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내의 독성물질 배출을 도와 준다. 특히 최근 대구 가톨릭대 연구결과 보리 추출물에는 치매와 심근경색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농민은 밭다른 대안 마련이 없는 한 추수가 끝나고 월동작물로 보리를 심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올해 7천여 평의 보리농사를 지은 강중성(61·강진군 도암면) 씨는 “보리농사를 지지 않으면 농촌살림에 타격이 크다”며 “수입 육수수사료를 보리로 대체하는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리 역시 멀지 않아 밀처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작물로 전락할 지 모른다. 보리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대체작물의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민들은 또 다른 ‘보릿고개’ 앞에 직면해 있다.

**병민한의원**

www.bimeo.com  
www.bimeo.net

062-1573-9177

**찾아오시는길**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지하철 1호선 동산역 3번 출구